

# SFAC Issue paper\_Culture + Policy

## 서울문화재단 **[문화 + 정책]** 이슈페이퍼

Vol. 2025-1 (2025.01.16 발간)

『2025년 트렌드와 문화정책 이슈』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 『2025년 트렌드와 문화정책 이슈』

작성자: 김해보(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트렌드 : Trend - a general direction of change; a way of behaving (출처 : 네이버 영어사전)>는 변화의 <추세(趨勢)>와 <동향(動向)>, 궁극적으로 <유행(流行)>으로 번역됩니다. <기술과 삶의 흐름으로서 트렌드>, <그 흐름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 맥락>, <변화를 이끌고 전환(轉化)시키는 이해관계자들의 마음>, <글로벌 문화정책 주체들이 주목해 온 이슈들>을 종합하여 <서울문화정책이 2025년에 집중할 이슈와 트렌드>를 정리해봤습니다.

“CES 2025는 H·U·M·A·N이다”(전자신문, 2025.01.03.)고 요약된 첨단 기술 전시장에서 확인된 문명의 트렌드는 Hyperconnectivity(초연결성), Unique(유니크)한 기술, Mobility(이동성), AI-Powered(AI 기반으로 진화하는 산업), National Priority(국가 우선주의)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2025)는 『2025 유통산업백서』에서 “고물가 시대” 올해 소비 트렌드를 ‘생존 소비’로 요약(한경비즈니스, 2025.1.7.)했습니다. 매년 회자되는 트렌드 분석 서적들에서는 <나>와 <취향>이 2024~2025 소비문화 트렌드의 핵심 키워드로 추출됩니다. “동시대 문화”를 추동하는 기술과 인간 취향의 흐름, 즉 2025년 트렌드들을 종합하니, <기술로 초연결되는 세계(Hyper-Connected World)>, <인간을 지향/대체하는 AI(AI forwards Human)>, <기계와 공유하는 취향 “나의 문화”(Ai-Empathized My-Culture)>로 정리됩니다. 경제지들은 “트럼프로 시작해 머스크로 끝났다”로 2024년 10대 국제뉴스(머니투데이, 2024.12.25.)를 요약했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2025년 R·I·S·K(Re-Trumpism : 트럼프주의 귀환, Invisible future : 미래사업 부재, Stagnant technology : 기술력 정체, Korean politics : 정치 불확실성)가 온다”(헤럴드경제, 2025.1.2.)며 경제-사회-정치 분야의 변화 맥락을 암울하게 짚어냈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 한 한국의 정치 현장을 중계하던 BBC뉴스(2025.1.3.)의 논평처럼, “처음이기 때문에 따라야 할 규칙이 없는”(BBC, 2025.1.3.) 상황을 현명하게 타개해가나기 위해 필요한, 함께 지켜야 할 <원칙>과 변화를 합의하는 <공론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새삼 문화의 역할이 중요하게 떠오릅니다.

트렌드가 흐르는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경제-사회적 맥락 중에서도 특히 문화정책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경제한파>, <Ai 기술>, <기후변화> 외에 <인구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25년에 20.6%로, UN 기준 초고령사회(20% 초과)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체류외국인현황에 따르면, 2024년 4월 현재 전체 인구 중 5.07%인 260만2669명으로,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OECD 기준(이주배경인구가 총인구의 5% 초과)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됐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웹진 A-Square는 “2025년 문화예술계 전문가들의 시각과 전망”(권용민, 2025.1월)으로 <인공지능(AI), 지역소멸(지방소멸), 고령화, 기후위기>를 2025년 문화예술 분야에서 주목할 키워드로 내놨습니다.

세계도시문화포럼(WCCF)이 2024년 초에 발표했던 <2024년 글로벌 문화정책 트렌드>와 IFACCA가 12월에 2024년을 되돌아보며 정리한 <2024 year in review>에서 공통적으로 짚히는 글로벌 문화정책 이슈는, <회복과 웰빙(Recovery and Wellbeing)>, <공공재로서의 문화(Culture as a Public Good)>, <문화생태계의 구조적 문제(Cultural Ecosystems)>, <증거기반 문화정책(Evidence)>, <Ai 시대의 문화(Culture as Algorithm)>로 요약됩니다. <규제 철폐>를 신년사 화두로 내들었고, 신년 직원 조례에서 글로벌 Top 5 수준의 도시경쟁력을 시정 목표로 강조하는 서울시장의 마음이 서울시 정책의 흐름을 바꿉니다. 『지역-문화-매력-활력 증진 방안』(김해보 외, 지방시대위원회, 2024)이나 『Measuring the attractiveness of regions』(OECD, 2022) 등 도시 경쟁력 대신 매력과 그것의 자원이 되는 로컬리티를 중하게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이미 만들어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 지금 서울에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서울로 이끄는 <서울다움>의 매력입니다.

이처럼 기술 및 소비 트렌드 보고서부터 언론사 신년기획까지 두루 훑어서 2025년 트렌드를 한마디로 종합하면 <연결>입니다.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시 문화정책의 실천 전략을 수립한다면 그 이유가 되는 <사람>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진정으로 <시민>이 <서울다움>을 느낄 수 있는 문화생활을 지탱해 주는 문화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석을 종합하여 서울의 문화정책이 2025년에 집중할 이슈를 <시민/예술/도시> 세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해 봅니다. <시민 : 서울다움을 지켜주는 문화생활>, <예술 : 문화예술생태계의 존속과 성장>, <도시 : 서울다움으로 매력있는 서울>입니다. 각 이슈들과 연결되어 관심 가져야 할 문화정책 트렌드 6가지는 <내 마음 돌보는 예술>, <개취 존중 문화서비스>, <글로벌로 예술시장 확장>, <기술로 없애는 경계>, <로컬리티가 매력 자원>, <경쟁력이 되는 문화>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집중할 과제를 찾아서 핵심 요소들을 <연결>하는 전략으로 실천되는 서울시 문화정책이 <사람>을 좀 더 행복하게 하는 2025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5년 서울문화정책이 집중할 이슈와 트렌드			
영역	집중할 문화정책 이슈	관련 트렌드	핵심키워드
시민	서울다움을 지켜주는 문화생활	≡내 마음 돌보는 예술	사람 + 연결
		≡개취 존중 문화서비스	
예술	문화예술 생태계의 존속과 성장	≡글로벌로 예술시장 확장	
		≡기술로 없애는 경계	
도시	서울다움으로 매력있는 서울	≡로컬리티가 매력 자원	
		≡경쟁력이 되는 문화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Vol. 2025-1호 (2025.1.16.)  
**2025년 트렌드와 문화정책 이슈<sup>1)</sup>**

[목 차]

1. 트렌드 \_ 기술로 만드는 <흐름>, 욕망으로 일으키는 <바람(風)>
  - (1) 인간 문명의 흐름을 만드는 <기술>
  - (2) <취향>과 <욕망>이 반응하는 삶의 흐름 ~ 風 ~ 문화
  
2. 변 화 \_ 흐름의 방향이 되는 <맥락>, 흐름을 전화(轉化)시키는 <마음>
  - (1) 흐름의 맥락이 되는 경제-사회-정치 : 2024~2025
  - (2) 문화의 흐름에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들
  - (3) 변화를 이끌고, 누적된 변동을 전화(轉化)시키는 <마음들>
  - (4) “K-”로 한껏 팽창, 이제 질적 고민이 필요한 변곡점에 선 한국 문화예술계
  
3. 이 슈 \_ 길게 해결할 문제들, 2025년에 집중할 이슈들
  - (1) 글로벌 문화정책이 주목해 온 이슈들
  - (2) 2025년 서울 문화정책이 집중할 이슈들
  
4. 이 유 \_ <사람>을 위한 <연결>
  - (1) 문화정책의 이유, <사람>을 향하는 실천 과제
  - (2) 변화 실천을 위해 <연결>되어야 할 요소들

☞ 분석에 사용된 기사들, 보고서 원본, 기초분석 자료 등은 문화+정책 정보서비스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제별 정보스크랩 채널은 당분간 계속 관련자료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채널 구독 링크 : <https://t.me/+mXUOi9d1FxAwMTI9>)

(상세 분석자료 다운로드 : <https://t.me/c/2365717323/103>)

---

1) “Trends and cultural policy issues for 2025” (Hae-Bo Kim, Culture+Policy Issue Paper Vol 2025-01, 2025.01.16.,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2025년 트렌드와 문화정책 이슈> 분석 결과 종합 요약**

구 분		분석 단위	세부 요소별 2025년 키워드				
트렌드 분석	기술과 삶의 흐름	개인(+사회) 차원	-기술로 초연결되는 세계 (Hyper- Connected World) -인간을 지향/대체하는 AI (AI forwards Human) -기계와 공유하는 취향 “나의 문화” (Ai-Empathized My-Culture)				
		기술(+문명) 차원					
		세계(+지구) 차원					
	흐름의 방향을 결정하는 배경맥락	경제적 변화	-저성장 경제 한파 -트럼프발 탈세계화 충격				
		정치적 변화	-미지의 불확실성 -인구구조 변화와 다문화 사회				
		사회적 변화	-기후 위기와 전지구적 재난 -광복 80주년				
		문화적 변화	-나만의 삶, 자기관리, 치유를 위한 예술 -늘어난 여가를 집 안에서 디지털로 -초고령 사회의 액티브 시니어 -지방소멸 중 주목받는 로컬리티 -문화예술도 必환경 시대 -질적 성장이 필요한 K-Wave				
	변화를 이끌고 전화(轉化)시키는 마음들	언론사 신년기획	-기대보다 우려 : 대통령, 트럼프, AI, 광복 80주년				
		문체부 정책기조	-문화로 지역균형 발전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우리 문화				
		서울시정 신년사	-규제 철폐 -삶 속에서 작은행복 -글로벌 Top 5 도시경쟁력				
문화정책가 주장들		-문화의 사회적 가치		-문화다양성			
이슈 정리	문화정책이 주목할 이슈들	글로벌 문화정책이 주목해 온 이슈들		-회복과 웰빙(Recovery and Wellbeing) -공공재로서의 문화(Culture as a Public Good) -문화생태계 구조적 문제(Cultural Ecosystems) -증거기반 문화정책(Evidence) -AI 시대의 문화(Culture as Algorithm)			
		서울 문화정책이 2025년에 집중할	트렌드	시민	예술	도시	
정책이슈	내 마음 돌보는 예술		개취존중 문화 서비스	글로벌로 예술시장 확장	기술로 없애는 경계	로컬리티가 매력 자원	경쟁력이 되는 문화
	사람다움을 지켜주는 문화생활		문화예술 생태계의 존속과 성장	서울다움으로 매력있는 서울			
결론	실천전략에 고려할	핵심 연결요소	▷ 문화예술생태계의 건강함 ▷ 다문화 도시의 다양한 가치 존중 ▷ 친근한 로컬리티로 글로벌에 연결하는 C-lobal(클로벌) ▷ Powered by Ai & Data(기술혁신) ▷ 선례없는 상황에 대처하는 적극행정				

# 1 트렌드 \_ 기술로 만드는 <흐름>, 욕망으로 일으키는 <바람(風)>

## (1) 인간 문명의 흐름을 만드는 <기술>

문명화된 도시에서 일어나는 문화 변화를 추동하고 그 방향을 바꾸는 힘으로서, 인간의 마음과 활동보다 강력해진 기술의 힘을 간과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매년 연초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전 세계 기업들의 기술 자랑의 큰 장터, CES가 열립니다. 지난 1월7일부터 10일까지 열린 CES 2025의 주제는 <연결성, 문제 해결, 발견, 깊은 탐구 : Connect, Solve, Discover, Dive in>였습니다. 딜로이트(2024)<sup>3)</sup>는 CES 2025가 <기술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에 집중하여 기술과 인간이 어떻게 함께 미래로 나아가며,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탐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생활의 패션으로 바로 반영되는 소비재 기술 전시장에서 보여진 Hyperconnectivity(초연결성), Unique(유니크)한 기술, Mobility(이동성), AI-Powered(AI 기반으로 진화하는 산업), National Priority(국가 우선주의)는 “CES 2025는 H·U·M·A·N이다”(전자신문, 2025.01.03.)<sup>4)</sup>로 요약되기도 했습니다. 문화예술도 기술이 만드는 흐름 위에 앉아서 더 멀리 쉽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CES 2025가 선택한 미디어와 콘텐츠 이슈들(ZDNet Korea, 2025.01.09.)<sup>5)</sup>로서, 미디어와 콘텐츠 분야에서 AI의 영향력 증대, 생성AI를 통한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방식 변화, AR/VR/XR 기반의 몰입감 높은 체험형 콘텐츠의 부상과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부활 등이 리뷰되었습니다. <가트너 10대 기술 트렌드><sup>6)</sup>와 <MIT테크리뷰 선정 10대 미래기술><sup>7)</sup>에서는 소비재 가전에서 드러나는 것 보다 근처에 있는 문명 구동 기술의 트렌드가 드러납니다. <에너지 효율>, <보안>, <공간 컴퓨팅>, <친환경>, <생명공학>, <우주로 향하는 기술>이 그것입니다.



2) 인용된 기사 원문 등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 텔레그램 채널 구독 링크 <https://t.me/+mXUOi9d1FxAwMT19>  
 3) 『CES 2025 Preview : Dive in - 연결하고, 발견하며, 발견하고, 깊이 탐구하라』 (딜로이트, 2024.12.23.)  
 4) [CES 2025] CES 2025는 H·U·M·A·N 이다 (배옥진, 전자신문, 2025.01.03.)  
 5) CES 2025가 선택한 미디어와 콘텐츠 이슈들 (고삼석, ZDNet Korea, 2025.01.09.)  
 6) 가트너, 2025년 10대 기술 트렌드 중 9개가 AI...에이전트·공간지능 등 선정 (임대준, AI 타임스, 2024.10.23.)  
 7) 2025년 생활 바꿀 혁신 기술 10가지...소 트림 감소제도 있다 (곽노필, 한겨레신문, 2025.1.6.)

## (2) <취향>과 <욕망>이 반응하는 삶의 흐름 ~ 風 ~ 문화

대한상공회의소(2025)는 『2025 유통산업백서』에서 “고물가 시대” 올해 소비 트렌드를 ‘생존 소비’ (한경비즈니스, 2025.1.7.)<sup>8)</sup>로 요약했는데, 그 이면에는 어려워진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 등의 불확실한 시대를 지나오면서 바뀐 사람들의 가치관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매년 회자되는 트렌드 예측 서적들이 2025년 트렌드 키워드로 중요하게 꼽은 것들을 살펴보면, 핵개인들의 <호명 사회>(송길영, 2024.9월), 잡식성 취향 추구 <옴니보어>(김난도 외, 2024.10월), 본질에 주목하는 Z세대의 <추구미>(대학내일20대연구소, 2024.10월), 미니멀, 슬로 라이프를 넘어 <정속 가능 라이프(The Right Speed for Good Life)>(엄기홍 외, 2024.10월) 등이었습니다. 종합하면 <나>와 <취향>이 2024~2025 소비 트렌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개인, 기술, 세계 차원에서 트렌드를 분석한 이 서적들을 종합 분석한 보고서들을 다시 요약하면<sup>9)</sup>, <기술로 초연결되는 세계(Hyper-Connected World)>, <인간을 지향/대체하는 AI(AI forwards Human)>, <기계와 공유하는 취향 “나의 문화”(Ai-Empathized My-Culture)>로 정리됩니다. 세 요소들을 모두 연결하여 변화를 추동하는 Ai와 데이터 기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겔렌은 “기술은 아직 현존하지 않는 목적이나 욕망을 위해 미리 그 수단을 발명한다”(아르놀트 겔렌, 1964)<sup>10)</sup>고 적었습니다. AI와 데이터로 문명을 구동하는 첨단 기술이 소비 욕망의 흐름(trend)만이 아니라 문화의 흐름, 즉 <풍류 : 風流>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문화기술로 잘 쓰이면 좋겠습니다.

트렌드 전망 서적들을 종합하여 도출한 트렌드 키워드			
분석의 차원	트렌드 구성요소	2025년 트렌드 종합	상호 연결성
개인(+사회) 차원	취향과 가치관 변화 인간관계 변화 소비 중점 변화	기술로 초연결되는 세계 (Hyper-Connected World) + 인간을 지향/대체하는 AI (AI forwards Human) + 기계와 공유하는 취향 “나의 문화” <sup>11)</sup> (Ai-Empathized My-Culture)	 Powered by Ai & Data
기술(+문명) 차원	서비스 변화 기업의 혁신 사회구조 변화		
세계(+지구) 차원	국제 정세 기후 문제 전 지구적 변화		

<출처 : 저자 정리>

8) “고물가 시대” 올해 소비 트렌드는 ‘생존 소비’ (정유진, 한경비즈니스, 2025.1.7.)

9) 각 자료들의 상세 내용 또는 목적은 <텔레그램 문화+정책 뉴스스크랩 채널>에 게시된 파일 참조

관련 게시글 링크 <https://t.me/c/2365717323/94>, <주제별-1월 이슈페이퍼-트렌드와 이슈 상세자료> 채널 전체 구독하기 초대 링크 <https://t.me/+mXUOi9d1FxAwMTI9>

10) 『최초의 인간과 그 이후의 문화』(아르놀트 겔렌 저 · 박만준 역, 지식을만드는지식, 2011)

11) “Be C-lobal : 글로벌 플랫폼 시대에 로컬콘텐츠의 매력 살리기” (김해보, 한국문화산업학회 2023년 춘계학술대회, 2023.5.13.) 참조 “...‘문화’라는 데이터’로 학습하여 ‘인간화된 알고리즘’이 사람들에게 “나의 문화(my cultur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취향”이 아니라 온라인 상의 인간, 비인간 ‘문화부족’들과 공유되면서, “나의 문화”라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굳이 애써서 사람과 소통하며 우리(We)를 확인할 필요가 없고, 나(Me)만 있어도 덜 외로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 (1) 흐름의 맥락이 되는 경제-사회-정치 : 2024~2025

변화는 변동(變動)과 전화(轉化)의 결합입니다. 만들어진 흐름으로 비슷한 상황이 누적되어 나아가는 것이 변(變)이고 쌓인 변화가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양태와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이 화(化)입니다. 변(變)의 흐름은 맥락을 따라 누적되고, 누적된 변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화(化)하는 것은 강한 힘에 이끌린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상황이 새로운 트렌드가 흐름 방향을 결정하는 배경 맥락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쌓인 변화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경제-사회-정치 분야의 2025년 전망은 Re-Trumpism(트럼프즘의 귀환), Invisible future(미래사업 부재), Stagnant technology(기술력 정체), Korean politics(정치 불확실성)의 <R.I.S.K>로(헤럴드경제, 2025.1.2.)<sup>12)</sup> 어렵게 요약됩니다. 연합뉴스 2025년 신년특집 - 2025 전망(연합뉴스, 2025.1월)<sup>13)</sup>의 주제들도 <트럼프發 폭풍, 초고령사회 진입, '민선자치 30년' 지방소멸 위기 속 메가시티 열풍, '트럼프 변수' 맞은 2개의 전쟁, 평화의 희망 찾을까> 등 대체로 어두운 이슈들입니다. 2024년 12월 31일에 국가미래연구원(2024)이 내놓은 『2025년 경제전망』<sup>14)</sup>이 내놓은 2025년 경제성장률은 1.67%로, 국회예산처가 2개월 전에 내놓았던 2.2%보다 크게 하향되었습니다. 삼정KPMG연구소(2024)에서 발간한 『2025년 국내 주요산업 전망』(김규림 외, 2024.12월)<sup>15)</sup>에서는 키워드로 본 2025년 5대 비즈니스 트렌드로 <Ai 확산, 에너지 전환, K-wave, 인구구조 변화, 공급망 안정화>를 제시했습니다.

BBC뉴스(2025.1.3.)<sup>16)</sup>는 대통령 체포 시도 과정에서의 대치 상태를 전하면서 “한국, 미지의 영역에 진입하다”고 논평했습니다. BBC의 논평처럼 “처음이기 때문에 따라야 할 규칙이 없는”BBC뉴스(2025.1.3.) 상황을 현명하게 타개해가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함께 지켜야 할 <원칙>과 변화를 합의하는 <공론장>일 것입니다. 선례 없는 사건에 대한 적절한 처리 기준을 합의하는 공론장 운영이나, 예기치 못한 사태로 받은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탄력적 회복력은 모두 성숙한 문화적 역량이 기반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성장하는 인간, 공유되는 가치가 필요한 시대에, 문화가 말아야 할 역할이 큼니다.

2025년 재계에 닥친 R.I.S.K는? <출처 : 헤럴드경제(2025.1.2.)>		
<b>R</b> Re-Trumpism	트럼프즘의 귀환	-트럼프, 관세인상.보조금 혜택 축소 압박 -車, 배터리, 반도체 등 주력산업 타격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수출 감소 우려
<b>I</b> Invisible future	미래사업 부재	-반도체, 배터리 이을 차세대 신성장 아이템 부재 -신성장 동력 발굴 위한 M&A, 지분 투자 경색 -R&D 세액공제율 상향 법안 처리 지연
<b>S</b> Stagnant technology	기술력 정체	-미.중과 AI 등 첨단기술 수준 격차 확대 -대만 TSMC와의 파운드리 사업 격차 확대 -중국 배터리 기술 경쟁력 강화로 한국 추적
<b>K</b> Korean politics	정치 불확실성	-탄핵정국 장기화로 외교 리더십 부재 -반도체 특별법 등 경제법안 표류 지속 -기업들의 중장기 계획수립 혼선

12) 2025년 R·I·S·K가 온다 (김현일, 헤럴드경제, 2025.1.2.)

13) 연합뉴스 2025년 신년특집 - 2025 전망 (연합뉴스, 2025.1월)

14) 『2025년 경제전망』 (국가미래연구원, 2024.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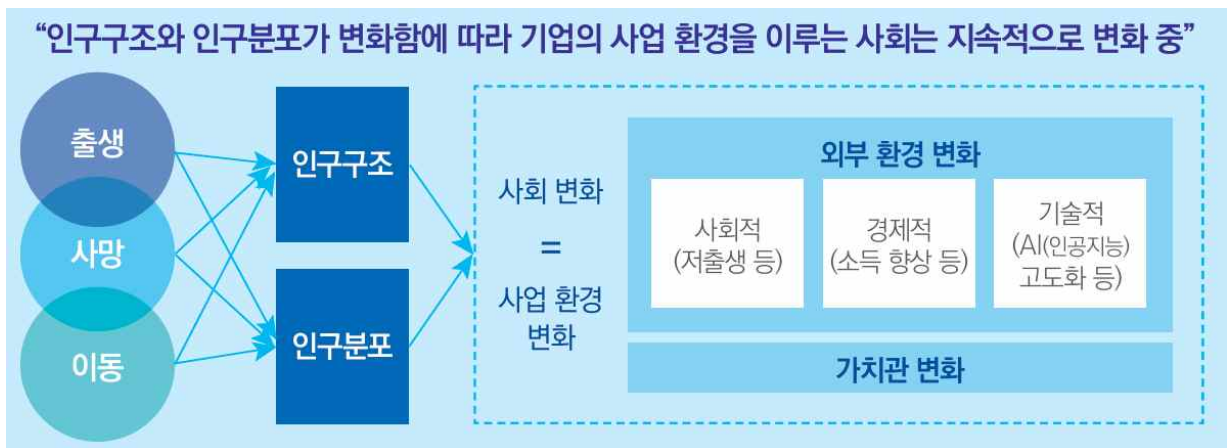
15) 『2025년 국내 주요산업 전망』 (김규림 외,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4.12월)

16) A dawn stand-off, a human wall and a failed arrest: South Korea enters uncharted territory (Jean Mackenzie, BBC, 2025.1.3.) (새벽 대치, 인간 벽, 그리고 실패한 체포: 한국, 미지의 영역에 진입하다)



## (2) 문화의 흐름에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들

특히 문화정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할 요소로서, <경제한파>, <Ai 기술> 외에 <인구변화>, <기후변화><sup>17)</sup>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25년에 20.6%로, UN 기준 초고령사회(20% 초과)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삼성KPMG 경제연구원, 2024)<sup>18)</sup>. 그리고 법무부 집계 체류외국인 수는 2024년 4월 현재 전체 인구 중 5.07%인 260만2669명으로,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OECD 기준(이주배경인구가 총인구의 5% 초과)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변화는 서울에서도 초고령 사회와 다문화 도시를 고려한 새로운 문화서비스 개발과 제공 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주요한 환경변화입니다.



<출처 : 삼성KPMG 경제연구원(2024)>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내놓은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5-2027』(노수경 외, 2024)<sup>19)</sup>의 2025-2027 문화예술 트렌드 키워드 변화 예측에서 <디지털리터러시 및 교육, 디지털전환 및 스마트기술, 문화산업 및 경제, 사회적 가치 및 지속가능성, 여가 및 라이프스타일> 등을 증가하는 토픽으로 파악했습니다. 아울러 범사회 환경 변화를 분석을 통해 ▷1. 윤리없이 스며든 디지털과 AI, ▷3. ‘나만의 삶’에 빠져든 대한민국, ▷6. 멘탈헬스, 숨지 않는 자기관리와 치유적 예술, ▷7. 에코 크리에이션(Eco Creation), 환경과 문화예술의 조화, ▷9. 지역이 새롭게 진화한다, 하이퍼로컬 커머스 시대, 등 총 10대 트렌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문체부는 <2024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물가·비대면 취미 확산, 여가 시간 늘고 지출액은 감소(연합뉴스, 2024.12.27.)<sup>20)</sup>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웹진 A-Square는 “2025년 문화예술계 전문가들의 시각과 전망”(권용민, 2025.1월)<sup>21)</sup>을 통해, 문화예술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로 파악한 2025년 문화예술 분야의 주목할 만한 키워드를 내놨습니다. <인공지능(AI), 지역소멸(지방소멸), 고령화, 기후위기>입니다.

17) 기후적응대책 다시 짚다…한파·폭염 대피시설 늘리고, 피해 보상 확대 (천권필, 중앙일보, 2025.1.10.)

18) 『저출생·고령화 인구 대변혁 시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삼성Insight 제90호, 삼성KPMG 경제연구원, 2024)

19)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5-2027』 (노수경 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

20) 고물가·비대면 취미 확산…여가 시간 늘고 지출액은 감소 (황재하, 연합뉴스, 2024.1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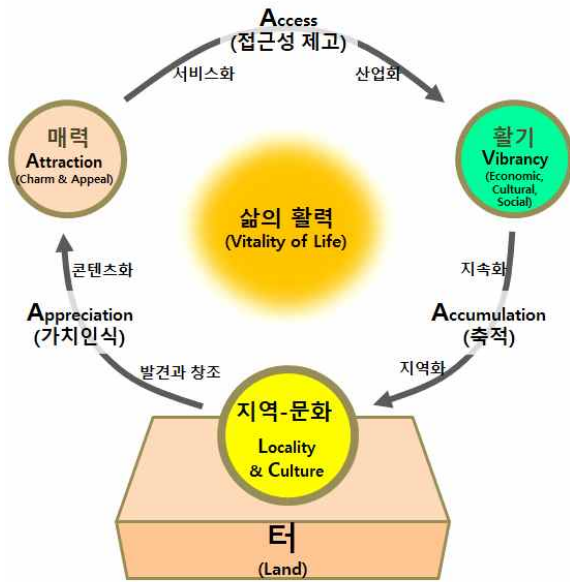
21) “2025년 문화예술계 전문가들의 시각과 전망” (권용민, A-Square Vol.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5.1월)

### (3) 변화를 이끌고, 누적된 변동을 전화(轉化)시키는 <마음들>

사람들의 <마음>은 트렌드 변화의 배경이 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맥락의 기저에서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고, 흐름으로 누적된 변동을 다른 국면으로 전화(轉化)시키며 변화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정책이 트렌드를 해석할 때 데이터 분석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더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내는 언론사의 새해 첫 기사들이 주목한 2025년 키워드는 <대통령(정치)>, <트럼프(신 국제질서)>, <AI>, <광복 80주년>였습니다. 2025년 예산<sup>22)</sup>으로 말하는 문체부의 정책 중점은 2025년 업무보고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문화로 지역소멸 해결>,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우리 문화><sup>23)</sup> 정도로만 파악됩니다. 문체부 정책에 대한 비평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국정 운영의 핵심과제와 문화예산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이원재, 2025.1월)<sup>24)</sup>고 지적하며 걱정하는 문화정책 전문가의 마음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연초부터 분주하게 뛰는<sup>25)</sup> 방향은 신년사<sup>26)</sup>로 표방된 서울시장의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서울시정의 화두로 꺼내 든 것은 <규제철폐>였습니다. 또 신년 직원 조례에서 파악되는 서울시장의 마음에 부합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서울로 이끄는 <매력>인 것 같습니다. 『지역-문화-매력-활력 증진 방안』(김해보 외, 지방시대위원회, 2024)에서는 로컬리티를 포함한 지역-문화가 매력의 자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국 컨설팅 회사의 영업 성과와 연결되는, 각종 도시경쟁력 순위 발표에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2024년 5월에 발표한 <매력공간지수><sup>27)</sup>를 문화지표와 연결하여(가칭)<도시매력지수>를 개발하고 긴 안목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출처 : 서울시(2025)>



지역 활력 = 삶의 활력 + 터의 활력

#### <지역-문화-매력-활력 순환 체계>

<출처 : 김해보 외(지방시대위원회,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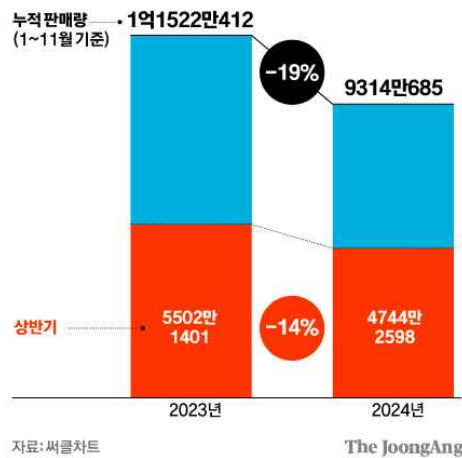
22) 문체부 2025년 예산 7조 672억 원으로 확정 (문체부 보도자료, 2024.12.11.)  
 23) 문체부, 올해 어려운 민생에 문화로 희망 주고 세계 잇는 문화정책 추진한다 (보도자료, 문체부, 2025.1.10.)  
 24) “예산으로 보는 2025 문화예술정책 - 국가 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원재, A-Square Vol.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5.1월)  
 25) 서울시정 화두 ‘규제철폐’… 공무원이 선제적으로 아이디어 발굴·제안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기획조정실, 2025.1.3.)  
 26) 2025년 서울시정 신년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2025.1.1.)  
 27) 오세훈 시장, '매력공간지수' 개발 발표…직·주·락 도시 조성에 나선다 (서울시 보도자료, 2024.5.14., 서울시청 홈페이지)

#### (4) “K-”로 한껏 팽창, 이제 질적 고민이 필요한 변곡점에 선 한국 문화예술계

2024년에도 K-콘텐츠와 K-POP의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글의 각 부문별 검색어 최다 키워드 10개를 선정하는 <2024년 글로벌 검색어 리스트> 중 Song와 TV-Show 두 가지 부문에서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APT.’, 드라마 ‘눈물의 여왕’, ‘내 남편과 결혼해 줘’ 등 한국 관련 검색어가 순위에 올랐습니다<sup>28)</sup>. 그런데 국뽕을 빼고 현실을 보면, 9년 만에 역성장한 음반 수출 실적을 보여주는 한국음반콘텐츠협회의 씨클차트의 숫자(중앙일보, 2024.12.29.)<sup>29)</sup>나, “케이(K)아트의 높아진 위상과는 별개로 작품성과 작업 콘텐츠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여전히 필요하다”(한겨레신문, 2024.12.29.)<sup>30)</sup>고 지적하는 쓴소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자료에 근거한 <2024 공연계 결산>에서도 중장년 관객이 늘었지만 ‘겉치기 논란’(뉴스핌, 2024.12.31.)<sup>31)</sup> 등 양적 성장의 뒷면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12.3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공연 시장 위축 분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예측도 있습니다. 미술계도 2024년에 오랜 숙원이었던 미술품 물납제가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여성 작가의 약진이 두드러졌지만, 광풍처럼 일었던 아트테크 투자 사기와 5년만의 최악의 경매시장 실적을 보인 것으로, 별로 밝지 않게 2024년을 결산하였습니다.(뉴시스, 2024.12.28.)<sup>32)</sup>

#### 지난해 비해 크게 줄어든 음반 판매량

단위: 장



<출처 : 중앙일보(2024.12.29.)>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웹진 A-Square는 한국인의 K-Arts가 세계인의 K-Arts가 되기 위해 “국가주의의 그늘”을 벗어나야 한다는 전문가의 고언을 전합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 콤플렉스 없는 K-Arts”(오창은, 2025.1월)<sup>33)</sup>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체부와 서울시가 모두 국제교류를 강조하는 시점에서, “우리 것을 보라”며 일방적 발신주의를 계속 추구할 것이 아니라, 상호 교류를 통해 서로에게 스며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서울사람이 “서울 좋다!”고 떠드는 것 보다는 외국사람이 서울에 와서 우리도 미처 못 알아 본 서울다움의 매력을 발견하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이웃에게 얘기하는 것이 더 파급력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28) 구글 ‘검색어로 돌아보는 2024년’ 리스트 (구글코리아 블로그 운영팀, 2024.12.10.)

29) 음반 판매량 고점 찍었나...수출 부진에 템퍼링 이슈로 K팝 성장 '빨간불' (황지영, 중앙일보, 2024.12.29.)

30) 얼어붙고 굶고 쪼그라들고...과시했지만 실속 못 차린 2024 미술판 - 2024 미술계 연말결산 (노형석, 한겨레신문, 2024.12.29.)

31) [2024 공연 결산] 중장년 관객 늘었지만 '겉치기 논란' 불거져 (양진영, 뉴스핌, 2024.12.31.)

32) 여성 작가 시대·미술품 물납제 첫 시행...아트테크 찬물[2024 미술계 결산] (박현주, 뉴시스, 2024.12.28.)

33)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 콤플렉스 없는 K-Arts를 위해” (오창은, A-Square Vol.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5.1월)

## (1) 글로벌 문화정책이 주목해 온 이슈들

서울의 문화정책이 2025년에 집중할 당면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문화정책 기구들이 최근 계속 주목해 온 이슈들을 파악하여 그 흐름을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WCCF(세계도시문화포럼)은 2024년 초에 <회복과 웰빙>, <권력 나누기(문화 거버넌스)>, <문화 생태계>, <미래 과제 및 기회>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글로벌 문화 트렌드 10개를 제시했습니다<sup>34)</sup>. 이는 문화+서울 이슈페이퍼<sup>35)</sup>가 2023년 말에 그해 글로벌 문화정책 포럼들의 주제 키워드들을 종합하여 요약한 글로벌 문화정책 이슈들 <인공지능, 기후, 건강, 증거, 문화정치, 도시, 예술>과 대동소이합니다. 글로벌 문화정책의 지속되는 과제들입니다. 2024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두바이에서 개최된 WCCF Summit에서는 “내일의 문화: 다음 세대가 우리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Tomorrow’s Culture: How Will the Next Generation Shape Our World?)를 주제로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sup>36)</sup>.

WCCF 선정 세계도시들의 2024년 10대 문화 트렌드	
구 분	2024년 10대 글로벌 문화 트렌드
Recovery and wellbeing (회복과 웰빙)	Trend 1. Culture drives city recovery but suffers from ‘long Covid’ 문화가 도시 회복을 주도하지만 '코로나후유증'으로 어려움 겪음
	Trend 2. Culture and health: happier and longer lives 문화와 건강: 더 행복하고 오래 사는 삶
Power sharing (권력 나누기 : 문화거버넌스)	Trend 3. Citizens as decision-makers: democracy in action 시민이 정책결정자: 실천하는 민주주의
	Trend 4. Culture addressing inequality and historical injustices 문화가 불평등과 오래된 부정에 맞서다
Cultural ecosystems (문화 생태계)	Trend 5. Culture at Risk: protecting artist studios, cultural spaces and community infrastructure 위기에 처한 문화: 예술가 작업장, 문화공간, 공동체 인프라의 보전
	Trend 6. Supporting the creative workforce: freelancers and micro-businesses 창조인력 지원 : 프리랜서와 소규모 사업체 지원
	Trend 7. 24 hour cities: culture leading the rise of the night time economy 24시간 도시: 야간 경제 성장을 이끄는 문화
Futur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미래 과제 및 기회)	Trend 8. Culture fosters hope and resilience 문화는 미래 희망과 회복력을 키운다
	Trend 9. Technology is challenging culture and creativity 기술이 문화와 창의성에 던지는 문제
	Trend 10. Culture, climate change and the global development agenda 문화, 기후 변화 및 글로벌 개발 의제

<출처 : WCCF, 2024.1.26.>

34) World Cities Trends 2024 - 10 global trends for culture in cities (세계도시들의 2024년 10가지 문화 트렌드) (WCCF, 2024.1.26.)

35) “세계도시들의 문화정책... 흐름과 키워드” (2/3)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2023.12.14.)

36) Highlights from the World Cities Culture Summit 2024 in Dubai (2024 WCCF 두바이 서밋 하이라이트) (Katherine Thornton, World Cities Culture Forum, 2024.11.11.)



WCCF 2023 서밋 폐막식에서 8개 언어로 작성된 “지속가능발전(SDGs)을 위한 문화분야의 목표 상파울루 선언문(A Goal for Culture : São Paulo Manifesto)” 발표 (출처 : 상파울루시청)

IFACCA가 12월에 2024년을 되돌아보며 국제기구와 국가 단위의 주요 문화정책 활동성과를 정리한 <2024 year in review : IFACCA 2024년 문화정책 이슈 결산>도 최근 지속되는 글로벌 문화정책의 이슈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IFACCA는 뉴스레터 ACORNS에서 2024년에 다루어진 주요 글로벌 정책 실천과 보고서들을 종합하여 2025년 주요 정책 의제를 <공공재로서의 문화 (Culture as a Public Good)>, <문화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 (Addressing structural deficiencies in the cultural ecosystem)>, <정책 수립을 위한 도구로서의 데이터와 통계 (Data and statistics as a tool for policymaking)>, <기술적 혁신 탐색하기 (Navigating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등 다섯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제시하였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IFACCA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 개최하는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 10th Summit on Arts & Culture><sup>37)</sup>에서는 <지식 체계와 주체 (Knowledge System and Agency)>, <참여 체계와 유대감(Participatory System and Connectedness)>, <디지털 체계와 기술(Digital System and Technology)> 세 영역으로 나누어 이런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문화정책 기구들의 트렌드 리뷰와 전망들을 종합하면, 서울시가 긴 안목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주체들과 협력하면서 해결할 문화정책 과제가 <회복과 웰빙(Recovery and Wellbeing)>, <공공재로서의 문화(Culture as a Public Good)>, <문화생태계의 구조적 문제(Cultural Ecosystems)>, <증거기반 문화정책(Evidence)>, <Ai 시대의 문화(Culture as Algorithm)>로 요약됩니다.

37) 총회 홈페이지 <https://www.artsummit.org/programme-kr>

## (2) 2025년 서울 문화정책이 집중할 이슈들

기술과 삶의 트렌드부터 글로벌 문화정책 이슈까지 살펴본 2025년 트렌드 및 이슈 분석과정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서울의 문화정책이 2025년에 집중할 이슈와 관심 가질 트렌드들을 <시민/예술/도시> 세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해 봅니다. <시민 : 사람다움을 지켜주는 문화생활>, <예술 : 문화예술생태계의 존속과 성장>, <도시 : 서울다움으로 매력있는 서울>이라는 영역별 문화정책 이슈들이 도출됩니다. 각 이슈들과 연결되어 관심 가져야 할 문화정책 트렌드 6가지는 <내 마음 돌보는 예술>, <개취 존중 문화서비스>, <글로벌로 예술시장 확장>, <기술로 없애는 경계>, <로컬리티가 매력 자원>, <경쟁력이 되는 문화>입니다.

<2025년 트렌드와 문화정책 이슈> 분석 결과 종합으로 도출된 집중 이슈와 트렌드							
구분	분석 단위	세부 요소별 2025년 키워드					
트렌드 분석	기술과 삶의 흐름	개인(+사회)차원	-기술로 초연결되는 세계 (Hyper- Connected World) -인간을 지향/대체하는 AI (AI forwards Human) -기계와 공유하는 취향 "나의 문화" (Ai-Empathized My-Culture)				
		기술(+문명)차원					
		세계(+지구)차원					
	흐름의 방향을 결정하는 배경맥락	경제적 변화	-저성장 경제 한파		-트럼프발 탈세계화 충격		
		정치적 변화	-미지의 불확실성		-인구구조 변화와 다문화 사회		
		사회적 변화	-기후 위기와 전지구적 재난 -광복 80주년				
		문화적 변화	-나만의 삶, 자기관리, 치유를 위한 예술 -늘어난 여가를 집 안에서 디지털로 -초고령 사회의 액티브 시니어 -지방소멸 중 주목받는 로컬리티 -문화예술도 必환경 시대 -질적 성장이 필요한 K-Wave				
	변화를 이끌고 전화(轉化)시키는 마음들	언론사 신년기획	-기대보다 우려 : 대통령, 트럼프, AI, 광복 80주년				
		문체부 정책기조	-문화로 지역균형 발전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우리 문화				
		서울시정 신년사	-규제 철폐 -삶 속에서 작은행복 -글로벌 Top 5 도시경쟁력				
문화정책가 주장들		-문화의 사회적 가치		-문화다양성 -국가주의 탈피 -국가 차원의 문화 정책 전환			
이슈 정리	문화정책이 주목할 이슈들	-회복과 웰빙(Recovery and Wellbeing) -공공재로서의 문화(Culture as a Public Good) -문화생태계 구조적 문제(Cultural Ecosystems) -증거기반 문화정책(Evidence) -AI 시대의 문화(Culture as Algorithm)					
결론	서울 문화정책이 2025년에 집중할	트렌드	시민	예술		도시	
		정책이슈	내 마음 돌보는 예술	개취 존중 문화 서비스	글로벌로 예술시장 확장	기술로 없애는 경계	로컬리티가 매력 자원
		사람다움을 지켜주는 문화생활	문화예술 생태계의 존속과 성장		서울다움으로 매력있는 서울		

**(1) 문화정책의 이유, <사람>을 향하는 실천 과제**

집중할 이슈의 실천과제를 정함에 있어서 문화정책의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트렌드 분석 결과를 한 단어로 제시하라면 <연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에 기반한 정책 실천의 이유는 <사람>으로 제시합니다. 기술이 인간을 흉내 내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국가와 국가, 심지어 인간과 기계를 <연결>하며 완전히 새로운 문명을 열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트레이시 팔로우스는 2055년쯤이면 많은 사람들이 "인지적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BBC뉴스코리아, 2025.1.4.)<sup>38)</sup> <연결>로 힘을 키운 기계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이 폭발하는 시대이며, 동시에 인간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 <연결>의 <이유>, 이를 통한 변화의 이유가 자본, 제도, 국가의 변성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한 삶과 문화적 성장임을 재확인 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과 닮아가고 연결되어 이제 인간을 능가하기까지 하는 Ai와 휴머노이드 “아리아”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섹스 머신이 될지<sup>39)</sup> 만능 비서가 될지는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문화적 수준에 달린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Time of Machine learning Human>, 즉 <기계가 인간을 배워서 혁명이 일어나는 시대>이지만, 조만간 <인간이 기계의 작동 방식을 배워야 뇌썩음<sup>40)</sup> 없이 사고할 수 있는 시대>, 즉 <Time of Human learning Machine>으로 전도될 것 같은 조짐이 보입니다. 그 어느 때 보다 <사람>의 인간다움과 품격을 유지하는데 문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CES의 키워드가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인간중심 : Human-Centered>으로 요약되는 것은 기술평론가들의 클리셰이기도 하지만, “인간중심주의”를 자사 기술의 지향점이라고 홍보하는 글로벌 기술기업들의 마케팅 전략과도 연결됩니다. 인간은 애초부터 자본이 구동하는 기계의 존재 <이유>이며 <자원>이며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단순히 Ai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삶의 모든 순간 발생하는 데이터를 Ai에게 제공함으로써 <Life Time Value(고객 생애 가치)<sup>41)</sup>를 제공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흠으로 만든 것”이라는 <Human>이 생각하는 기계를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재료쯤으로 해석되는 지금, “살고 알아가는 주체”를 표현한 <사람>이라는 말이 소중하게 들립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정으로 <시민>의 <사람다움>을 지켜주는 문화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장의 신년사에서 “매일 편안함을 느끼고 삶 속에서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의 서울: 살맛 나는 도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희망적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문화정책이 집중할 2025 트렌드 및 이슈 분석으로 도출되는 <내 마음 돌보는 예술, 개취 존중 문화서비스>, <글로벌로 예술시장 확장, 기술로 없애는 경계>, <로컬리티가 매력 자원, 경쟁력이 되는 문화>라는 트렌드에 부합하게, <예술치유 마음약방> <도시매력지수 개발> 등의 상상 가능한(!) 실천과제 예시들을 제안합니다. (☞별첨 상세 보고서 참조)

38) 1995년 당시 사람들은 2025년에 대해 어떤 예측을 했나? (그라함 프레이저, BBC뉴스코리아, 2025.1.4.)

39) "나랑 XX 할래"...돌봄 로봇과 성적 대화 하는 노인들 (유지희, 한국경제, 2025.1.11.)...男노인 10명 중 6명 "돌봄로봇과 성적 대화", '성관계' 관련 단어 전체의 80%

40) 솟품 중독, 이렇게 무섭다...옥스퍼드, 올해 단어로 '뇌 썩음' 선정 (김명진, 조선일보, 2024.12.2.)

41) 한 개인이 특정 기업과 관계를 맺거나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평생 동안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가치의 총합

## (2) 변화 실천을 위해 <연결>되어야 할 요소들

서울문화정책이 실천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외부 환경 요소들은 <경제한파 : 저성장 + 탈세계화>, <불확실성 : 국내외 정치 + 글로벌 재난>, <인구변화 : 인구감소 + 고령화>로 요약됩니다.

서울의 문화정책이 2025년에 집중할 과제를 실천함에 있어서 **시민/예술/도시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문화예술생태계의 건강함>, <다문화 도시의 다양한 가치 존중>, <친근한 로컬리티로 글로벌에 연결하는 C-lobal<sup>42)</sup> 전략>**으로 요약됩니다. 앞서 도출된 <Powered by Ai & Data>와 연계한 문화서비스의 기술혁신과, 선례 없는 상황에 대처하는 <적극 행정>도 공공정책의 실천 전략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문화예술생태계, 다문화 도시, C-lobal(클로벌), Ai & Data, 적극행정>**이라는 실천전략의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집중할 과제를 찾아서 핵심 요소들을 <연결>하는 전략으로 실천되는 서울시 문화정책이 <사람>을 좀 더 행복하게 하는 2025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문화정책이 2025년에 집중할 이슈와 트렌드 연결을 통한 실천전략에 고려할 핵심요소들			
구분	집중할 이슈	관심 가질 트렌드	연결을 통한 실천전략 핵심요소들 (볼드체는 키워드)
시민	사람다움을 지켜주는 문화생활	→내 마음 돌보는 예술	▷문화예술생태계의 건강함 ▷다문화 도시의 다양한 가치 존중 ▷친근한 로컬리티로 글로벌에 연결하는 <b>C-lobal(클로벌)</b> ▷Powered by <b>Ai &amp; Data</b> (기술혁신) ▷선례없는 상황에 대처하는 <b>적극행정</b>
		→개취 존중 문화서비스	
예술	문화예술 생태계의 존속과 성장	→글로벌로 예술시장 확장	
		→기술로 없애는 경계	
도시	서울다움으로 매력있는 서울	→로컬리티가 매력자원	
		→경쟁력이 되는 문화	

☞ 언급된 자료들의 요약본과 좀 더 상세한 분석은 별첨 파일을 참조하세요<sup>43)</sup>

※ 이슈페이퍼 내용은 작성자의 견해일 뿐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42) 클로벌(C-lobal) = {close, cultural, contextual} × {global}은 로컬리티와 글로벌라이제이션 사이의 관계를 대립적 또는 종속적 관계로 보지 않고 상호공진화의 관계로 보는 관점임. 로컬리티가 매력자원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네트워크 위에서 공유되어야 하는데, 이때 글로벌한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면서도 유니크한 로컬리티를 유지하는 것이 디지털을 통한 초-연결성과 신냉전의 탈-세계화 현상을 동시에 보이는 지금 필요한 글로벌 문화전략임. 로컬리티의 문화적(cultural) 매력을 친근하고(close), 수용자의 요구와 맥락에 맞춰(contextual) 소통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문화-매력-활력 증진 방안』(김해보 외, 지방시대위원회, 2024) 참조

43) 인용된 기사 원문 등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 텔레그램 채널 구독 링크 <https://t.me/+mXUOi9d1FxAwMTI9>



Vol. 2025-1 (2025.01.16. 발간)

『2025년 트렌드와 문화정책 이슈』

작성자: 김해보(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Vol. 2025-1

2025년 트렌드와 문화정책 이슈

발행일 : 2025년 1월 16일

발행인 : 송형종

발행처 : 서울문화재단(www.sfac.or.kr)

기획·집필 :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김해보 전문위원

편집 : 서울문화재단 미래전략팀

디자인 :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